

국어 (國語)

정원상 교수

2012 서울시 9급 기출문제(A형) 정답 및 해설

2012. 6. 9.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⑤	⑤	④	②	④	③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⑤	①	④	①	④	①	①	⑤	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난이도 中]

표준발음법 6항에 의하면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긴소리가 나지 않는다. ‘말’은 동음이의어로 ‘말[言]’은 긴소리가 나고, ‘반말’은 짧아진다. 반면, ‘말[馬]’은 짧은 소리이다.

[오답] ②, ⑤의 ‘눈[雪]’과 ‘밤[栗]’은 첫음절은 긴소리가 나지만 둘째 음절 이하이므로 짧은 소리가 난다.

2. 정답 ② [난이도 中]

이 시조는 정철의 <훈민가(訓民歌)>이다. 제목에서 보듯 주제는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함’이다. 평이하면서도 정감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강한 설득력을 지닌 16수로 된 조선전기의 연시조이다.

[참고] (해석)

<2수> 군신(君臣)

임금과 백성 사이는 하늘과 땅인 바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아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라고 좋은 미나리를 혼자 어찌 먹으리.

<3수> 형우제공(兄弟弟恭)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아라.
누구의 손에 태어났기에 모습조차 같은가.

한 어미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만 마음을 먹지 마라.

<4수> 자효(子孝)

아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하여라.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한들 무엇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은 이(부모 섬기기)뿐인가 하노라.

3. 정답 ⑤ [난이도 中]

<3수>는 ‘제 간의 우애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덧먹음을 먹지 말라는 것은 ‘땀 마음 먹지 말고 한마음 한 뜻으로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4. 정답 ⑤ [난이도 中]

<4수>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풍목지비(風木之悲)’는 ‘효도(孝道)하고자 하나 부모(父母)가 이미 돌아가셔서 효양할 길이 없어 한탄(恨歎)함’

을 비유해 이르는 말로 ‘풍수지탄(風樹之嘆)’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한시외전(韓詩外傳)>의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자욕양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奉養)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에서 유래한 뜻으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말이다.

5. 정답 ④ [난이도 上]

화자인 춘향이는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수양머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피꼬리’라고 표현하면서 아름답게 보고 있다. 따라서 ④번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서정주의 <추천사(秋戀詞)>

주제 : 현실 초월의 갈망

어조 : 대화체

소재 : ① 그네 - 이상 세계로 나아가는 동시에 현실로 되돌아오는 한계 (이중적 의미)

② 달 - 화자와 대조적. 자유로운 대상.

③ 산호, 섬 - 장애물

④ 머언 바다, 하늘, 서(西) - 이상 세계

6. 정답 ② [난이도 上]

문예 사조 중 ‘낭만주의(浪漫主義)’는 고전주의 다음에 발생한 사조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유럽에 전파된 사조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괴테, 빅토르 위고, 워즈워스, 노발리스’ 등이 있다.

참고로, ‘말라르메, 보들레르, 랭보’는 상징주의 작가이다.

7. 정답 ④ [난이도 下]

④번은 황소의 울음을 금빛이라고 표현한 공감각적 표현(청각의 시각화)이다. 나머지는 모두 역설법(逆說法. =모순 어법=모순 형용)이 사용되었다.

8. 정답 ③ [난이도 中]

이 소설은 1930년대라는 식민지 시대의 무기력한 지식 청년들 생활상의 한 단면을 제시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나타나 있다.

‘레디메이드(ready-made) 인생’이란 기성품(既成品) 인생이란 뜻으로 팔리기를 기다리는 기성품처럼 직업을 기다리는 실업자를 의미한다. 1930년대 세계적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니 자연 생활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룬펜, P의 이런 모습을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참고]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1934)

주제 : 식민지 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대한 비판 (무기력한 지식인 계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

9. 정답 ② [난이도 中]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은 고려 시대가 아니라 조선 성종(15C) 때 지은 최초의 가사(歌辭)이다. 나머지는 모두 고려 시대 때의 속요(俗謠)이다.

10. 정답 ① [난이도 中]

문학 비평의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역사주의 비평’은 작품과 작자와 사회, 역사, 시대 등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중시하는 비평 방식이다. 문학 작품 해석의 방법이라면 ‘표현론적 방법과 반영론적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② 심리주의 방법 : 심리주의적 이론에 의해 작가의 창작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 작자의 개인적 상징을 분석, 해명하여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③ 형식주의 방법 (=⑤ 구조주의 방법) : 작품을 시대적 상황 등의 외적 요인들과 분리하여, 작품 자체의 내적 속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식. 문학 작품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하나의 체계라고 상정하는 이 방식은 주로 작품의 구조, 문체, 운율, 수사법 등 문학적 언어의 쓰임을 분석하는 것을 중시한다. 분석비평이 이에 속한다.

④ 신화주의 방법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신화소를 분석하고 신화의 원형을 파악하여 문학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문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사고·행동 체계가 원시적 제의나 그와 관련된 신화적 우주·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신화 속에 존재하는 원형은 시대를 넘어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형적 양식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재현되었는가를 탐구한다.

11. 정답 ③ [난이도 上]

‘파방에 수수엿 장수’는 ‘기회를 놓쳐서 이제는 별 볼 일 없게 된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파장에 수수엿 장수)

[참고]

파방(罷榜) :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발표를 취소하던 일.

12. 정답 ⑤ [난이도 上]

관용적 표현인 ‘말소리를 입에 넣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중얼중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는 뜻이다.

[오답]

① = 논(論)하다 = 논지(論之)하다

예) 그는 학문에 대하여 논하기를 좋아한다.

13. 정답 ① [난이도 上]

적절한 한자의 표기를 묻는 문제이다.

체계(體系) :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몸 체, 맬 계) 예) 이론 체계

유형(類型) :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무리 유, 모형 형)

예) 세 가지 유형

유추(類推) :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무리 유, 밀 추)

예) 유추에 의하여 판단하다.

차용(借用)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 (빌릴 차, 쓸 용) 예) 차용 문서

[참고] 계(計) : 셈 계. 예) 계산(計算)

형(形) : 모양 형. 예) 형상(形象)

유(維) : 버리 유. 예) 유세차(維歲次)

차(差) : 다를 차. 예) 차이(差異)

14. 정답 ④ [난이도 中]

‘로브스터(lobster. 바닷가재)’는 적절한 표기이다. ‘랍스터’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외래어 표기법 세칙 2항에 보면 ‘유성 파열음 [b], [d], [g]는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고 되어 있다.

예) 지그재그(zigzag), 불도그(bull dog) 등

[오답]

① 케익(X) → 케이크(O), ② 플래쉬(X) → 플래시(O),

③ 아울렛(X) → 아웃렛(O), ⑤ 하일라이트(X) → 하이라이트(O)

15. 정답 ① [난이도 中]

월곶(Weolgot)(X) → 월곶(Wolgot)(O).

외래어 표기법 표기 일람 2항에 보면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예) 벚꽃[번꼐] : beotggot, 합덕 : Hapdeok

16. 정답 ④ [난이도 中]

김소월의 <접동새>(1923)에 관한 문제이다. 이 시는 서북 지방 접동새 설화에서 모티브를 끌어 왔다.

[참고]

주제 :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하려는 애절한 혈육의 정

17. 정답 ① [난이도 中]

‘아우래비’는 학자에 따라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아홉 오래비’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고, ‘아우 오래비’로 해

석하기도 한다.

[참고] 접동새 : 죽은 누이의 분신으로,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생활과 사랑의 정한’을 보여 준다. 접동새는 다른 말로 ‘소쩍새, 귀족도, 두견, 불여귀, 자귀’ 등으로 불리며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나타내는 감정 이입의 대상으로 자주 쓰인다.

18. 정답 ① [난이도 中]

외래어 표기법 1장 1항에 보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 모만으로 적는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28자는 훈민정음 창제 글자이다.

19. 정답 ⑤ [난이도 下]

청자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득(說得)’이 아니라 ‘설명(說明)’이다.

참고로, 설득은 주관적으로 깨우치는 것이다.

20. 정답 ⑤ [난이도 上]

‘望(망)’은 ‘보름(15일)’을 뜻한다. 참고로, ‘기망(既望)’은 ‘음력으로 매달 열엿새날’을 가리킨다.

[오답]

① 朔(초하루 삭) : ㉠ = 삭일(朔日)(매달 음력 초하룻날)

예) 결혼식을 삼월 삭일로 정했다.

㉡ 개월. 달을 세는 단위.

예) 내가 유학 온 지 칠팔 삭이 지났다.

② 旬(열흘 순) : 한 달을 셋으로 나눈 열흘 동안.

예) 삼순구식(三旬九食) : 서른 날에 아홉 끼.

③ 晦(그믐 회) : 그믐날(음력으로 그달의 마지막 날).

= 회일(晦日)

④ 念(생각할 염. 스물 염) : 스무날.

결론적으로, 날짜 관련 단어는 순서대로 ‘삭(1)-순(10)-망(15)-염(20)-회(30 또는 31)’로 외워두면 된다.

<2012년 서울시 9급 국어 총평>
(天衣無縫 정원상 국어)

1. 출제 결과

	유형	문항수	비율
1	문학	10	50%
2	어문 규정	4	20%
3	어휘	2	10%
4	비문학	1	5%
5	한자 성어	1	5%
6	속담	1	5%
7	한자의 표기	1	5%

2. 2012년 서울시 국어의 합격선은 80점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울시는 문학과 어휘 영역 때문에 국가직,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어려운 편입니다. 대체로 어문 규정은 정답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이었고 예상대로 문학과 어휘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 서울시 합격 점수가 83.9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3. 문학(文學)에서 10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 역시 관건은 문학 영역입니다. 서울시 9급 문제는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달리 문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시험입니다. 2012년 지방직 시험에서는 문학이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치러진 서울시 시험에서 평균 10문항 정도 출제되었고 이번 2012년 서울시 시험에서도 1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현대 문학에서 7문항, 고전 문학에서 3문항이 출제되어 문학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수험생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으리라 예상됩니다.
- 그 중에서도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능력과 ‘낭만주의 사조’를 몰랐던 문학 지식 등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4.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 5번, 6번, 11번, 12번, 13번, 20번 문제 등 문학과 어휘, 한자어 문제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문학 지식을 지엽적으로 묻거나 낯설고 생소한 단어를 문제로 출제하면 수험생들이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즐겨 출제하는 한자의 표기 문제도 출제되어서 한자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12. 5. 24. 행안부 모의평가와는 문제 유형이 다릅니

다.

- 문학이 이렇듯 50%를 차지하는 서울시 유형은 최근 발표된 공직박람회 모의평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안부 모의평가는 문학이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더구나 문학 작품의 감상 문제나 문학 지식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비문학 영역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래어 표기법이나 표준 발음, 로마자 표기법, 한자 성어, 속담, 관용어, 어휘 문제 등은 기존 다른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만의 특별한 경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향후 바뀌는 시험 유형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6. 2013년 내년도 예상 경향

내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출제 경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시 문제 유형이 그대로 되풀이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문제 유형이 지나치게 다르므로 수험생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을 비롯하여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경향을 답습하기보다는 행안부에서 발표한 모의 문제를 토대로 수능형 쓰기 영역 문제나 어휘, 비문학 독해 문제 등도 신경 쓰면서 대비해야 합니다. 내년엔 서울시 유형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이 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전 영역을 아우르며 국어의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7.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잊어버려라!”

- 시험 후 후회나 아쉬움보다는 부족함을 느끼고 냉정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동안 눈물과 땀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리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시험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개선하고, 빨리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랗진 시계는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cafe. daum. net/jwskorean)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면 불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